

실직자 가정 아내의 노동활동에 관한 연구

이 기 영*

I. 서 론

외환위기로 말미암은 IMF 관리체제를 겪으면서 우리사회는 심각한 규모와 파장을 지닌 대량실업을 경험하고 있다. 지난해의 50-60개의 퇴출기업 발표를 시작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서 실업은 더욱 급증하고 한동안 그 추세가 지속적인 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관심은 한층 실직자의 원조에 집중되고 있으며, 또한 가정의 실직으로 말미암아 가족의 역기능이 심화되고 그 결과 가족해체가 증대되는데 심히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을 경험하는 가족의 상황을 연구하면서도 실직가장이외의 가족구성원, 특히 실직가장의 배우자로서의 기혼여성의 노동시장활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연구의 초점이 주어지지 못했다. 즉, 남편 혹은 다른 가족원의 실업이라는 가족 경제의 위기에 직면하여 아내의 경제적 대응 행태가 어떻게 표출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실직자(남편 혹은 그 외의 가족구성원)가 있는 가구에서 아내들이 가구주인 실직이라는 가족사적 충격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아내를 위주로 분석하려 한다. 아내의 노동시장활동에서의 대응행태, 이러한 아내의 대응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아내의 대응행태에 따른 남편의 심리상태, 그리고 가족생활변화와의 관계(예: 자녀의 학업중단, 부부관계)등을 살펴보고 실직자 가정에서의 기혼여성의 취업과 관련된 연구와 실천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더 이상 가구경제의 책임이 남성가장 1인에 맡겨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증

* 성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하고 (예를 들어, 실직가정에서의 주된 수입원이 '배우자 소득'에서 얻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38.5%라고 답하고 있다(금재호, 1997:88)), 대량실업이 본격화하면서 기혼여성들의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활동을 예상할 때 이러한 상황에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적 위치를 파악하고 이들의 취업 원조를 위한 대책에 대한 논의는 가족전체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가족해체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가족의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는 데에도 아내는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가족의 적응전략을 논의하면서 Moen과 Wethington (1992)은 가족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구주인 남편 외의 가족 구성원들이 노동시장으로 적극적으로 나가거나, 가사를 분담하고, 임금이나 다른 경제적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공유한다는 것이다.

Mincer (1960) 또한 주장하기를 가족성원의 임금노동의 정돈에 초점을 맞추면서 가구주가 적절한 생활수준 혹은 기본적 경제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가지지 못할 때 다른 가족성원들이-예를들어, 가구주의 배우자, 성인자녀, 혹은 같이 사는 친척등- 그 가구를 위한 소득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 가구에서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지는 복수소득자(dual wage-earner)의 가구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사례가 미국과 같은 외국의 가족들의 경험에서 형성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적절히 적용될 수 있으며 오히려 가장을 위시한 가구원의 실직으로 인한 가구 경제의 위축에서 아내의 소득발생(income generation)의 노력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해 3월 말 SK 생명이 서울지역 주부 5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주부의 65%가 IMF 이후 전업주부 생활을 끝내고 맞벌이를 고려하고 있다고 대답해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남편과 함께 나누어지려는 자세를 보였다(주간조선, 1998). 또한 남편의 실직이나 소득의 감소 후 YMCA, 사회복지관등에서 실시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업기술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아내들이 많아진다는 보도가 빈번하다.

그러므로 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가정의 주요 노동력 층이 실업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등 가정 내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소득활동을 하지 않던 가족 구성원들이 가구의 생계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기혼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거나 가구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소득을 발생시키데

있어서 촉진적 혹은 억제적 요인들은 노동경제학의 인적자본이론(theory of human capital)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Becker, 1993). 즉, 실직자의 아내의 학력, 기술수준, 직업경력, 나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등이 인적자본과 관련된 변수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수에 따라 아내의 경제적 대응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인적자본이외에도 아내의 경제적 공헌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 가족의 구성,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서 거주지역의 노동시장의 상태등이 제시되기도 한다.

Ⅲ. 연구의 방법과 내용

이 연구는 기존의 조사결과자료를 이용하는 2차 자료분석을 실시하여 이루어졌다. 기존의 자료는 1998년 10월 보건사회연구원과 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의 원자료(raw data)이다.

조사내용과 표본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¹⁾

조사원은 전국에서 표본추출된 조사지역의 모든 가구(30,937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대상자를 직접 면접하였다. 먼저, 표본추출된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실업가구원과 IMF 이후 직장 변동이 있는 가구원을 판별하는 조사를 실시하여, 가구원 중 실업자가 1명 이상 있으면 실업가구로 구분하여 실업가구조사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조사를 실시하였고, 비실업가구 중 구직경험 비경제활동인구 혹은 IMF 이후 직장변동이 있는 가구원이 있으면 가구조사와 해당가구원을 대상으로 개인조사를 하였다. 가구조사의 경우는 가구내의 모든 가구원의 개인특성과 가구의 가족생활을 응답해 줄 수 있는 가구원이며, 가능한 한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개인 조사는 실업자와 IMF 이후 전직경험이 있는 가구원에 대해 직접면접조사를 하였다.

조사에서는 가구를 크게 실업가구²⁾와 비실업가구³⁾로 분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IMF 이후에 전직을 하지 않은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및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조사된 총가구수 4,339가구⁴⁾ 중 실업가구는 2,767가구, 비실업가구는 1,572가구였다.

1) 조사내용 및 원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

2) 실업자가 1명 이상 있는 가구

3) IMF 이후에 전직을 경험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지난 1년간 한번이상 구직활동을 한 비경제활동 인구가 1명 이상인 가구

4) 가중치를 부여한 수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업가구, 이중에서도 가구주인 남편이 실업상태에 있는 가구에서의 아내의 노동시장활동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실직자 가구중에서 여성의 노동시장지위에 관계없이 남편이 실직후 조사시점에 이르기까지 실업상태로 머무르고 있는 가구의 경우만을 선별하여 아내의 대응행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가구는 모두 1040가구였다.

분석의 내용은 실직한 남편이 있는 기혼여성(주부)의 노동시장지위와 남편을 위시하여 가족구성원들이 실직혹은 이직했을 경우 어떠한 경제적 대응행태를 보이는가를 살피고 이러한 노동시장지위와 대응행태에 관계를 가지리라고 예상되는 여성의 나이, 교육수준, 남편의 실직기간등의 변수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아내의 노동시장지위와 경제적 대응행태가 가구경제에 얼마나 실질적인 기여를 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몇가지 변수를 동원하여 간접적이거나 고찰할 것이다. 아울러, 실직한 가족이 발생한 경우 아내의 경제적 대응행태로 말미암아 남편의 심리적 상태와 가족내부적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볼 것이다.

실직자가정에서의 아내의 행태만을 살펴보는 것은 실직가정내의 경제적 위기극복의 역동성을 파악하는 기제로는 부족하다. 즉, 가족내의 역동성이란 남편 및 아내, 그리고 자녀등 가족구성원 모두의 노동시장활동, 심리상태와 가족반응을 살펴보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포괄적인 내용은 기존자료의 제한성과 시간적인 제약조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단순화시켜 설명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후속적인 연구작업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IV. 분석 결과

1. 조사대상 실직자 가정 아내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1) 부부의 연령

실업상태에 있는 가구주로서의 남편의 연령은 40대가 32.4%로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빈도순으로 50대(27.4%), 30대(25.9%)가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소수의 20대와 60대의 실업남편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의 아내들의 연령분포는 40대와 30대가 3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비슷하고 그다음 50대가 약 20%를 약간상회하고 20대도 1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60세 이상으로 남편이 실업중에 있는 아내는 전체의 약 4% 못 미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조사대상가구의 부부의 교육수준

조사대상 가구의 실업상태에 있는 남편중 약 81%가 고등학교 졸업 혹은 그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전문대이상의 학력은 약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업자 가구주의 아내의 경우 91%가 고졸 및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9%정도가 전문대재학 이상의 학력수준을 가지고 있다.

<표 1> 실업상태의 남편과 그 아내의 교육수준

교육수준	아내		남편	
	빈도 (%)	누적퍼센트	빈도 (%)	누적퍼센트
미취학, 무학	33 (3.2)	3.2	28 (2.7)	2.7
초등학교	250 (24.6)	27.8	173 (16.9)	19.7
중학교(고등공민학교)	205 (20.1)	47.9	183 (17.9)	37.6
고등학교	437 (42.9)	90.9	443 (43.3)	80.9
전문대학	31 (3.0)	93.9	37 (3.6)	84.5
대학교	60 (5.9)	99.8	147 (14.4)	98.9
대학원	2 (.2)	100.0	11 (1.1)	100.0
N of Observation	1018 (100.0)		1022(100.0)	

3) 남편의 실업기간

총 949명의 응답으로 얻는 평균실업기간은 7.28개월(SD 10.01)이다. 다시말하여 본 조사대상가구의 가구주인 남편은 평균적으로 반년이 조금넘게 실업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실업기간을 몇 가지 구간으로 분류하여 그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실업자남편의 실업기간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3개월 미만	316	30.4	33.3	33.3
	4-6개월	232	22.3	24.4	57.7
	7-9개월	209	20.1	22.0	79.8
	10-12개월	94	9.0	9.9	89.7
	1년 이상	98	9.4	10.3	100.0
	Total	949	91.3	100.0	
Missing	System Missing	91	8.8		
Total		1040	100.0		

위의 표에서 보이듯이 남편의 실업기간은 비교적 장기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040 가구중 약 90%가 1년 미만동안 실업하고 있는 남편이 있고 또한 6개월 미만은 약 58%에 이른다. 한편 1년 이상의 실업을 경험하고 있는 남편은 10.3%에 이른다.

2. 실업가구 아내의 노동시장적 지위

공식통계상으로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 그리고 구직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1주일 중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또한 '취업'은 (1)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나 (2) 조사기간 1주간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또는(3) 조사기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 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으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실업은 현실적으로 거의 실업상태에 가까운 다수의 무급가족종사자와 실망근로자들은 제외되어 있다. 다행히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고 있다. 즉, 보건사회연구소의 조사내용으로 실업자중 구직자와 구직경험비경제 활동인구(실망실업자)를 따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로서 실업하고 있는 남편을 둔 아내의 노동시장지위는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표 3> 실직자 가정 아내의 노동시장지위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비경제 활동인구	587	56.4	56.6	56.6
	일용직임금근로자	93	8.9	9.0	65.6
	일용직외 임금근로자	162	15.6	15.6	81.2
	비임금근로자(무급가족노동포함)	104	10.0	10.0	91.2
	실업자	80	7.7	7.7	98.9
	실망실업자	11	1.1	1.1	100.0
	Total	1037	99.7	100.0	
Missing	System Missing	3	.3		
Total		1040	100.0		

실업상태인 남편을 둔 아내 1040명중 노동시장을 떠난 상태에 있는 경우는 전체의 57.5 퍼센트에 해당하고 이중의 11명(전체의 1.1%)는 실망실업자로 나타났다. 실망실업자란 실업자중에서 구직활동을 해도 취업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번 조사의 경우 과거 1년이내(1997년 9월 13일-1998년 9월 12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거리나 직장을

구해보았지만 조사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1998년 8월 13일-9월 12일)는 직장을 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본 조사의 결과 실업자 배우자로서의 아내의 노동시장참가율은 42.2%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8년 3월 기준의 우리나라 전체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46.8%)보다 4%이상 낮은 수치이다(한겨레신문 98년 4월 27일자 참조).

실업자의 배우자로서의 아내중 24.6%(255명)는 임금근로자(일용직포함)로서, 10%(104명)는 맞비임금근로자(무급가족종사자)로서 일하고 있으며, 나머지 7.7%(80명)는 실업상태에 있다. 경제활동인구중에서 각각의 고용형태 규모를 살펴보면 일용직 임금근로자는 21.1%, 일용직외 임금근로자는 36.7%,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는 비임금근로자 23.6%를 차지하고 있다. 비임금 근로자중 무급으로 가족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아내는 1명밖에 없었다.

실업상태에 있는 아내 80명이 구직하고 있는 이유는 본인의 실직 때문에 재취업을 원하고 있는 경우였고(35.8%), 25.7%는 배우자 및 다른 가족의 실직 때문에, 28.4%는 집안의 소득감소를 보충하기 위하여, 가구의 빚 때문에 이를 갚기위해서가 6.8%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그 외 범례에 속했던 본인의 지출(용돈, 학비등)을 위해서나 여타 수입을 위해서, 자신의 발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라는 항목은 한명의 응답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응답의 내용은 실직자가 존재하는 가정의 아내의 구직이유로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며 그들의 구직이유가 경제적 생존을 위한 매우 절실한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3. 아내의 노동시장 지위와 자신의 연령, 교육수준, 남편의 실직기간과의 관계분석

1) 아내의 연령과 노동시장 지위

실직가정 아내의 노동시장지위별 평균연령을 살펴보았을 때 세부적 노동시장 지위시 분산분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F=3.258$, $sig.=001$), 비경제 활동자로부터 실업자에 이르는 다섯가지 집단을 아래의 행들에서와 같이 4집단, 2집단으로 분류할때는 연령이 이들의 지위에 따라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마 집단별 연령의 차이는 일용직 근로자와 비일용직 임금근로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 같다. 즉, 비일용직 임금근로를 하는 아내들이 40.65세로 가장 젊고(평균적으로), 일용직 근로를 하는 아내들이 가장 나이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4> 실직자 가정아내의 노동시장지위별 평균연령비교

	N	평균 연령	Std. Deviation	Minimum	Maximum	분산분석결과 F(sig.)
비경제활동자	585	42.15	10.39	20	70	3.258(.001)
일용직 임금근로	93	45.04	8.02	29	64	
비일용직 임금근로	162	40.65	8.19	20	60	
비임금 근로자	103	41.73	8.79	23	62	
실업자(실망실업포함)	90	42.69	8.22	24	65	
Total	1033	42.18	9.59	20	70	
비경제 활동	585	42.15	10.39			.167(.919)
임금근로자	255	42.25	8.39			
비임금근로자	103	41.73	8.79			
실업자(실망실업포함)	90	42.69	8.22			
Total	1033	42.18	9.59			
비경제활동인구	585	42.15	10.39			.012(.912)
경제활동인구	448	42.22	8.43			
Total	1033	42.18	9.59			

2) 아내의 교육수준과 노동시장 지위

<표 5> 아내교육수준과 아내의 노동시장지위

		아내의 노동시장지위					Total
		비경제활동 자	일용직 임금근로	비일용직 임금근로	비임금 근로자	실업자 (실망실업포함)	
아내의 교육수 준	중졸혹은 그이하	53.5%	14.0%	14.6%	10.1%	7.8%	100.0%
	고퇴 혹은 고졸	59.5%	4.6%	15.3%	10.8%	9.8%	100.0%
	전문대졸 이상	59.1%	3.2%	21.5%	7.5%	8.6%	100.0%
Total		n=575	91	158	103	89	1016
		56.6%	9.0%	15.6%	10.1%	8.8%	100.0%

Chi-Square= 32.385 (sig.=.000)

실직자 가정의 아내의 교육수준은 그들의 노동시장지위의 분포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일용직 임금근로자인 경우 중졸이하의 학력소지자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14%) 고등학교 수험자는 4.6%, 전문대졸은 3.2%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일용직을 제외한 임금근로자의 경우, 전문대이상의 학력소지자가 다른 학력 집단보다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21.5% vs. 14-15%정도).

3) 남편의 실직기간과 아내의 노동시장지위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편의 실직기간은 아내의 노동시장지위와 매우 유의미한 관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비경제 활동인구인 아내들의 남편의 실직기간의 가장 짧고 근로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아내의 경우 그들의 남편의 실업기간은 비교적 장기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남편과 함께 실업상태에 있는 아내들의 경우, 그들의 남편이 평균적으로 가장 긴 실업기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실직자 가정의 아내들은 가족원(주로 남편)의 실직후 기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노동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보여진다. 물론 아내의 노동시장 진출과 취업이 남편의 실직시기와는 직접적으로 비교되지 않았으므로 위의 두 개념사이의 관계성을 정확히 확신할 수는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뒤에서 제시되겠지만, 가족원(남편을 위시한)의 실직후 보인 아내의 경제적 대응행태(예: 구직을 시작, 혹은 새로 취업함등)와 남편의 실직기간을 비교했을때에도 구직상태에 있다고 응답한 아내들보다 새로 취업했다고 응답한 아내들의 남편의 실직기간이 훨씬 장기화 한 것이었다(6.77개월 대 10.74개월).

<표 6> 아내의 노동시장지위에 따른 남편의 평균 실직기간 비교

		N	Mean	Std. Deviation	Minimum	Maximum	분산분석결과 F(sig.)
남편의 실업기간 (개월)	비경제활동자	547	6.61	9.11	-3	131	3.831(.004)
	일용직 임금근로	83	10.06	11.33	0	65	
	비일용직 임금근로	150	6.36	7.39	0	66	
	비임금 근로자	96	8.72	10.60	0	68	
	실업자(실망실업포함)	71	9.35	16.37	0	136	
	Total	947	7.29	10.02	-3	136	
							2.632(.049)
비경제 활동		547	6.61	9.11			
임금근로자		233	7.68	9.15			
비임금근로자		96	8.72	10.60			
실업자(실망실업포함)		71	9.35	16.37			
비경제활동인구		547	6.61	9.11			6.060(.014)
경제활동인구		400	8.23	11.09			

4. 실직자 가정 아내의 노동활동과 가구경제 기여와의 관계

여기서 살펴보는 것은 실직가정에서 아내가 노동시장에 진출하거나 자영업을 함으로서 위축된 가구경제에 도움을 주었느냐 하는 것이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가구경제에 기여를 간접적으로 파악할수 있는 변수로서 가구원의 실직후 감소된 월평균 소득을 위주로 파악하였다. <표 7>에서 보는바와 같이, 먼저 아내의 노동시장 지위를 5가지로 나누었을 때,

비경제활동자인 아내의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실직후 130만원정도의 가구소득이 감소되었고 실업자인 아내의 가구(즉, 부부가 같이 실업하고 있는경우)소득은 평균 163만원 정도 감소되었다. 반면 임금근로자나 비임금근로자로서 일하고 있는 아내가 있는 가구는 약 123만원에서 118만원정도 감소하여 비교적 낮은 감소폭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실직자 가정에서의 아내의 소득창출활동은 실제적으로 가구경제에 기여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한편 아내의 가구경제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보충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내 포함된 세 가지 변수들(즉, 가구의 생계유지방법 들 중에서 선별한 것 3가지: 퇴직금 혹은 퇴직수당의 사용, 친척의 도움, 그동안의 저축으로등)과 아내의 노동시장지위를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는 <표 8> 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실직가정 아내의 노동활동과 가구원 실직후 가구소득의 감소액 비교

		N	Mean	Std. Deviation	Minimum	Maximum	분산분석결과 F(sig.)
월평균 소득감소액(만원)	비경제활동자	499	130.20	78.31	0	1000	4.718(.001)
	일용직 임금근로	84	120.06	94.96	30	800	
	비일용직 임금근로	144	124.46	65.59	15	500	
	비임금 근로자	89	117.55	53.50	20	300	
	실업자(실망실업포함)	77	163.51	92.24	30	500	
	Total	893	129.93	78.01	0	1000	
	비경제 활동	499	130.20	78.31			6.240(.000)
	임금근로자	228	122.84	77.53			
	비임금근로자	89	117.55	53.50			
	실업자(실망실업포함)	77	163.51	92.24			
	비경제활동인구	499	130.20	78.31			.013(.908)
	경제활동인구	394	129.59	77.74			

<표 8> 아내의 노동시장지위와 가구의 생계유지방법

아내의 노동시장지위	퇴직금 또는 퇴직수당		Total	따로사는 친척의 도움		Total	그동안의 저축		Total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비경제활동	472	109	581	503	78	581	291	290	581
	81.2%	18.8%	100%	86.6%	13.4%	100.0%	50.1%	49.9%	100.0%
입금및 비입금 근로자(소득자)	329	23	352	330	22	352	262	90	352
	93.5%	6.5%	100%	93.8%	6.3%	100.0%	74.4%	25.6%	100.0%
실업자(실망실 업포함)	80	9	89	68	21	89	49	40	89
	89.9%	10.1%	100%	76.4%	23.6%	100.0%	55.1%	44.9%	100.0%
Total	881	141	1022	901	121	1022	602	420	1022
	86.2%	13.8%	100%	88.2%	11.8%	100.0%	58.9%	41.1%	100.0%

<표 8>에서 세가지 변수(생계유지 방법)들이 실직가정의 아내의 노동시장활동으로 인한 기여와 뚜렷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들어 퇴직금이나 퇴직수당의 사용은 실직가정의 아내가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을 때 비해 그렇지않은때에 비해 훨씬높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훨씬 어려운 처지에 있거나 IMF를 더욱 심각하게 극복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친척의 도움에 의지했다든지, 저축을 사용했다던지 하는 경험 또한 아내의 노동시장지위가 근로자일 경우에 훨씬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위 세 가지 변수의 교차표 분석결과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퇴직금 Chi-square 28.665(sig=.000), 친척도움 23.720(sig=.000), 저축 54.267(sig=.000)).

5. 아내의 노동시장지위에 따른 남편의 반응과의 관계조사

한편 현재의 아내의 노동시장에서의 활동이 조사시점 현재 응답한 실직자 남편의 심리상태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서, 긍정적인 관계(예를들어 소득을 창출하는 아내가 있을 경우 실직남편의 심리적 부담이 덜어주는 것등)는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된 남편의 실직후 조사시점현재의 심리상태의 종류는 공포감, 신경에민과 불안정, 가슴두근거림, 안절부절함, 사소한일에 짜증냄, 때려부수고 싶은 충동, 울화가 치밀, 잘다툼, 매사가 힘들, 허무함, 외로움, 죽고싶은기분등의 12가지였다.

6. 가족원의 실직 및 이직후 보이는 아내의 경제적 대응행태

여기서는 조사시점에서의 아내의 노동시장지위와 아울러 실직자 가정에서의 아내의 경제적 대

응행태를 살펴보았는데 그 경제적 대응행태란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남편 혹은 가족원의 실직이 나 이직에 대하여 아내가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원래의 조사 설문지에는 ① 새로 취업하였다, ②취업하고 있는데 부업(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③ '취업하고 있다가 소득증대를 위해 전직했다,' ④'취업하고 있는데 더 많은 시간 일했다,' ⑤'구직활동을 시작했다'의 다섯가지 항목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섯가지 중에서 실직가정의 아내들이 어떠한 대응행태를 가졌는지 살펴보는 것은 조사시점현재의 아내의 노동시장지위보다 가족적 경제위기에 대한 기혼여성의 보다 선명한 반응을 파악하기에 좋은 자료라고 고려되었기 때문이다.

1) 남편혹은 가족원의 실직시 아내의 경제적 대응행태

아내의 경제적 대응행태를 실직자 가구조사에서 나타난 바로 살펴보면 남편의 실직 혹은 이직에 대하여 새로 취업한 아내는 81명, 부업을 시작한 아내는 36명,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직장을 옮긴 아내는 3명, 이미 취업하고 있던 아내가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경우 (근로시간의 증가등)가 61명, 구직활동을 시작한 아내가 73명이다. 이상과 같은 경제적인 대응활동을 보인 아내는 조사대상 1040명중 254명이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태이든 남편의 실직에 대해 경제적 대응을 보인 아내는 총 1040명중 24.4%에 달한다.

<표 9> 가구원(남편 및 다른 가족구성원)의 실직 및 이직에 대하여 보인 아내의 대처

경제적 대응활동종류	아내가 새로 취업함	취업한 아내가 부업 시작	취업하고 있는 아내가 소득높은 직장으로 전직	취업하고 있는 아내가 근로시간 증대	아내가 구직활동 시작	총
명(% of total 1040)	81명(7.8)	36명	3명	61명	73명(7.0)	254명(24.4)
		100명 (9.6)				

이제 이러한 다양한 경제적 대응행태중에서 '새로 취업한 아내'와 '구직을 시작한 아내'의 두가지 경우를 위주로 앞서 현재의 아내의 노동시장지위와 관련해서 분석한 변수들을 그대로 적용해 분석해 보았는데 그것들은 아내의 연령, 교육수준, 남편의 실업기간, 가구소득 감소액, 실업상태의 남편의 심리상황 12가지등이다.

2) 실직가정아내의 경제적 대응행태와 연령, 교육수준, 남편실업기간, 가구소득 감소액과의 관계

가족원의 실직/이직후 보이는 아내의 노동시장지위(활동)변화는 자신의 나이에 의해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10>에서 분류한바와 같이 2그룹(구직시작과 새로취업한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t-test 결과는 나이의 분포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293$, $sig=.770$). 그리고 원래의 4그룹(구직, 취업, 취업후 보다 적극적인 소득활동, 무변화)으로 나누어서 분산분산을 해 보았지만 여전히 아내의 연령은 이러한 구분을 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아내의 경제적 대응행태와 아내연령, 남편 실업기간, 월평균가구소득감소액

	아내대응행태2분류	N	Mean	Std. Deviation	Std. Error Mean
아내의 연령	새로취업	81	43.04	9.40	1.04
	구직시작	72	42.60	9.11	1.07
남편의 실업기간(개월)	새로취업	73	10.74	18.46	2.16
	구직시작	62	6.77	6.61	.84
가구소득감소액분(만원)	새로취업	74	107.70	53.57	6.23
	구직시작	63	156.03	88.99	11.21

두 번째 관계적 변수로 살펴본 남편의 실직기간은 두 집단사이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만 (10.74 vs. 6.77개월) t-test결과 이 역시 통계적인 유의도가 떨어지고 있다($t= 1.606$, $sig=.111$). 한편, 원래의 4집단 분류를 해서 분석했을 때 남편의 실직기간은 아내의 노동시장적 활동에 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ANOVA test, $F=4.178$, $sig=.006$). 남편 혹은 가족원의 실직이후 구직을 시작한 아내의 경우 그들의 남편들은 조사시점 현재 평균 6.8개월의 실업상태에 있었고 (아무런 대응을 보이지않은 아내의 경우와 거의 비슷함: 6.8개월), 아내가 새로 취업했다고 파악된 가구의 가구주남편은 평균 약 11개월에 해당하는 실업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미 취업하고 있는 아내가 남편 혹은 다른 가족원의 실직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 조사시점현재 그들의 남편은 평균 8.7개월에 육박하는 실업기간을 경험하고 있었다.

셋째, 아내의 노동활동적 대응에 그들이 교육수준이 어떤 관계성을 지니는가를 살펴보기위해 교차표 분석을 해본 결과 4가지 다른 대응행태에 대하여 교육수준의 분포(중졸이하/ 고퇴와 고졸 / 전문대이상의 3분류)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 못했다($chi-square= 6.276$, $df=6$, $sig=.393$). 그러므로, 실직자가구의 아내의 경제적 대응행태에는 교육수준이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2가지 대응행태로 비교집단을 축소하여 구직시작과 취업의 대응행태를 보이는 아내들만 분석했을때에도 교육수준과의 관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내의 경제적 대응행태에 의한 경제적 기여의 정도(소득감소액 비교)를 비교했을 때 위

의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편혹은 가족원의 실직후 '새로 취업'한 아내가 있는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107만원 정도 감소한 반면 구직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아내의 가구는 평균적으로 월소득이 156만원이나 감소함으로써 두 집단사이에 큰 경제적 차이가 있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였다($t=-3.914$, $sig=.000$). 아래의 <표-11>는 원래의 4가지 대응행태를 소득감소액과 비교함으로써 보충적인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표 11> 아내의 대응적 노동활동에 따른 소득감소액의 비교

			N	Mean (만원)	Std. Dev.	Minimum	Maximum
소득의 감소액	아내 대응행태 4분류	새로취업	74	107.70	53.57	30	300
		구직시작	63	156.03	88.99	30	400
		취업자의 대응	91	118.63	61.82	20	500
		변화없음	666	131.43	80.34	0	1000
		응답총수	894	129.90	77.97	0	1000

(ANOVA test: $F=5.148$, $sig=.002$).

3) 가족원 실직후 아내의 경제적 대응행태와 남편의 심리상태와의 관계

앞서 조사시점현재의 아내의 노동시장지위와 연관해서 살펴보았던 실직남편의 심리상태 12가지는 가족원 실직후 경제적 대응행태를 보이는 아내들의 다양한 행태에 의해서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가지 예외적으로 관련성이 보여진 것은 실직남편이 응답한 공포감인데 이는 아내의 경제적 대응행태중 2가지를 선별하여(새로취업과 구직시작) 이와 교차표 분석을 했을 때, 취업한 아내를 둔 실직남편이 구직하고 있는 아내를 둔 남편보다 공포감에 휩싸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실직남편의 심리상태 12가지 항목중에 한가지에 불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가지 심리상황을 두고 취업하는 아내가 구직하고 있는 아내보다 남편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시켜준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표 12> 아내의 경제적 대응행태와 실직남편의 심리(공포감)

		공포감에 휩싸이는 때가 있다			Total
		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	그저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아내의 경제적 대응행태 2분류	새로취업	19	21	33	73
		26.0%	28.8%	45.2%	100.0%
	구직시작	11	9	45	65
		16.9%	13.8%	69.2%	100.0%
Total		30	30	78	138
		21.7%	21.7%	56.5%	100.0%

(Chi-square: 8.344, sig.=.015)

V. 토의 및 후속연구에 관한 제안

이 연구는 가구주의 실직이라는 가족경제의 위기시에 그들의 배우자인 기혼여성이 어떠한 경제적인 대응을 하는가라는 보다 포괄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부분적 분석작업으로 시작하였다. 물론 가족경제의 위기대응은 주부뿐 아니라 모든 성인 가족구성원들의 책임으로 분화할수 있지만 남편의 실업으로 인한 부차적 소득원으로서의 초점이 우선적으로 아내에게 모아진다고 보기에 실직가정의 아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아내의 경제적 대응행태를 가늠해 보기위해서 기존의 조사결과 자료로서 두 가지 측면을 분석해 보았다. 하나는 조사시점현재(1998년 9월) 실직가구주의 배우자인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지위를 파악해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편 혹은 다른 가족원의 실직후에 보였던 경제적 대응행태로서의 노동시장지위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실업으로 인한 가족경제 위기극복차원에서의 아내에 대한 분석이 주목적인 이 연구로서는 후자의 정보가 더욱 매력있는 것이었으나 그 내용이 아내에 의해 직접응답된것이라기 보다는 가구주에 의해 응답된 간접적인 것이었고 자세한 경제적 대응행태가 생략된 정보였기에 주요 변수로 사용하기에 제한점이 있었다. 그리고 비임금근로자의 활동내용도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전자의 정보와 함께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전자의 정보로 언급된 조사시점현재의 아내의 노동시장지위는 포괄적이긴 하지만 남편혹은 다른가족원의 실직시기와 구별되지 못하여 실직자 가정이 된후의 모습으로 파악되기는 역시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분석상의 제한점은 추후로 이루어질 자타의 연구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이러한 제한점 속에서 이 연구는 지금까지 도외시되어 왔던 기혼여성, 특히 남편이 실직한 가족 경제속에서의 노동활동을 정태적으로나마 밝히고자 노력했다는데 자족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시장지위를 결정하거나 그 지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변수들(아내의 연령, 교육수준, 남편의 실직후 경과기간, 남편의 심리상태,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내의 상황변화 등)을 분석하고, 아울러 아내의 노동활동이 가족경제에 도움이 되었나를 알아보기 위해 간접적인 방법이지만 가장의 실직후 변화한 월평균 가구 소득의 감소분을 분석하였다.

간략히 분석내용을 정리하자면 남편이 실직한 가정의 아내중 노동시장에 나와있는 아내는 42.2%로서 1998년 우리나라 전체여성의 노동시장참가율(46.8%)보다 4%이상 낮은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가구(1040가구), 즉 실업가구의 아내중 약 4명의 1명은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고 10명중 1명은 비임금근로자로서, 그리고 1명 미만(7.7%)이 남편처럼 실업상태에 있다. 경제활동인구중에서 일용직에 일하는 사람은 21%, 일용직이 아닌 임금근로자는 37%, 비임금근로자는 24% 정도이다. 조사대상가구의 실업가구주(남편)의 실직후 평균경과기간은 7.28개월정도이다.

이러한 실직가구의 아내의 노동시장지위는 그들의 연령과 교육과 그리 단순하지 않은 관계가 노정되었다. 즉, 교차표분석이나 분산분석을 통해서 통계적 유의성이 제시되었지만 구체적인 해석에는 애매함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비일용직 근로자로사의 기혼여성의 연령이 다른 노동시장지위를 점하고 있는 실직가정의 기혼여성보다 비교적 낮은편이다. 그렇지만 일용직 임금근로를 하고 있는 아내의 나이가 비교적 가장 높다는 사실은 쉽게 해석하기 어렵다. 그리고 학력수준도 그 해석이 단순하지 않다. 비일용직 직종에 고학력의 추세가 눈에 띄지만 실업자의 비율에서 고등학교학력소지자는 그 이상의 혹은 그이하의 학력소지자들보다 높다는 것, 비경제 활동인구에서 고등학교학력이상소지자가 그 이하 교육수준자보다 더 많은 상황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실직가구주(남편)의 실직후 경과기간은 아내의 노동시장지위와의 관계에서 매우 선명하다. 즉, 장기적이면 장기적일수록 실직자 아내를 노동시장에 불러들일 확률이 높고 또한 소득자화 할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남편의 실직후 보인 아내의 경제적 대응행태로서의 취업 혹은 구직시작은 실업기간과 아내의 적극적 노동활동추진이 비례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더욱 선명히 나타내고 있다.

실제 실직가정의 아내의 노동활동은 가구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드러난다. 비록 총가구소득을 다루지는 못했지만 남편의 실직후 감소한 소득의 내용에서 비임금근로자/임금 근로자/비경제활동인구/실업자의 아내순으로 전체가구소득이 적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남편의 실직후 보인 아내의 대응행태로서 취업을 하게된 아내의 가구는 구직상태에 있는 아내의 가구보다 무려 월평균 가구소득이 50여만원정도 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분석전 기대되었던 아내의 노동시장활동에 따른 실직남편의 심리적 상태, 그리고 전반적 가족의 상황변화(예, 아동의 위탁, 부모의 시설위탁, 부부싸움, 자녀의 비행화, 학업성적떨어짐, 자녀의 사교육중단등)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관계로 나타났다. 즉, 아내의 노동활동으로 실직남편의 심리적 부담이나 전반적 가족상황변화에는 별 영향력이 없거나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론하는 바이지만 이 연구는 장기적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초기단계의 분석이므로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혼여성에 대한 고용서비스 혹은 실직가구에 대한 탈빈과 관련된 복지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기는 어렵고 또 주저하는 바이다. 오히려 이 글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추후 이루어질 후속적인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기혼여성의 노동활동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조가 파악되어야만 한다. 가족의 구조를 파악한다는 것은 분석의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가족의 차원으로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제약상 이연구의 1차적 분석 범위에는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가족구조가 핵가족인지, 확대가족인지, 그리고 가족내의 피부양인가가 몇 명있는지, 연령과 성별, 건강의 정도등이 파악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

둘째, 가구의 소득(특히 근로소득의 소득) 및 자산에 대한 분석이 정확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가족경제의 위기감은 실직했다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내의 노동활동을 통한 경제적 위기 대처가 어느 가구에서나 무차별적으로 발생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아울러 실직자 가구가 활용하고 있는 비공식적 사회체계(친척, 이웃)를 통한 물질적 지원 등에 대한 정보가 가능하다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아내의 노동활동으로 인한 남편의 심리라든지, 부부관계, 혹은 가족 상황적인 변수들의 내용을 파악할 때 아내의 노동시장참여가 반드시 긍정적인 한 방향으로만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예상을 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인 부분의 보충만큼, 자녀와 부모의 부양이라든지, 가족의무에 대한 충실등이 남편혹은 가족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실직가정 아내의 노동활동과 관련된 개별 변수들을 분리해서 분석하기 보다는 회기분석과 같은 통계로서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각각의 상대적 관계성 혹은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는 이상적인 모습으로서 아내 개인의 인적자원요소들, 가족구조적 변수들, 가족경제적인 변수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족외적인 관련체계들, 공적 복지프로그램, 실업대책프로그램 등의 변수들이 통합적으로 다루어 질 수 있겠다.

참 고 문 헌

- 김재호(1997), 도시근로자의 실업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고용보험연구센터.
- 조선일보 (1998), 인터넷 자료, 1998년 1월부터 1998년 5월사이의 내용.
- 주간조선 (1998), 인터넷 자료, 1998년 4월 23일.
- Becker, G. (1993).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nce to education*.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ee, Kiyong (1998). *Southeast Asian families and pooled labor: Multiple wage-earner strategies for refugee households in the U. S.* New York, NY: Garland Publishing.
- Mincer, J. (1960). Labor Supply, Family Income, and Consump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50: 574-83.
- Moen, P. & Wethington, E. (1992). The Concept of Family Adaptive Strategi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8, 233-51.